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사법개혁·구금사태 쟁점

여 “위헌정당 해산” 야 “일당독재 저지” 대격돌 예고
내란특별재판부·3대 특검법 개정안 등도 공방 전망

여야가 15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여야는 정치(15일), 외교·통일·안보(16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 등 분야별로 대정부 질문을 한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개혁 입법과 내란 종식을 앞세운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면서 당위성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검찰청 폐지 등 자칭 검찰 개혁과 함께 대법관 증원 등을 위한 사법 개혁, 언론에 대한 배제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청산에 나서지 않고 국정 발목잡기를 하면서 오히려 ‘윤(尹) 어게인’을 하고 있다고 공세를 벌이면서 ‘위헌정당 해산론’을 재부각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첫 타자로 비상계엄 이후 탄핵·조기 대선 국면에서 공세 선봉에 섰던 박성준 의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친명(이재명)계 이해식·전준호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인 3선 중진 신정훈 의원 등도 등판한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는 통일부 장관 출신 이인영 의원, 외교통일외 간사 김명배 의원, 군 또는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비상계엄 정국에서 활약했던 김병주·김영배·부승찬·박선원 의원 등을 전면 배치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청와대 일자리수석 역임한 권철승·정태호 의원 등이 나선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이 정부 출범 후 첫 내각을 상대로 한 청문회 성격으로 규정하고 정부 정책을 면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을 고리로 ‘외교 참사’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방안도 정조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3대 특검법 등을 야당 탄압 시도로 규정하며 ‘일당독주’를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연를 있는 중진 의원을 배치해 기선제압을 시도할 방침이다.

첫날 정치 분야에는 당내 ‘공격수’로 평가받는 3선의 임이자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며 3선 신성범 의원, 국회 법사위 소속 박귀월 의원 등이 가세할 예정이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는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재선 배준영 의원을 필두로 외교부 출신 김건 의원,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 등이 나서 정부의 외교 실책을 추궁하고 ‘굴종적 대북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는 4선인 김상훈·이현승 의원이 정부의 확장재정과 부동산 정책,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의 문제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5선의 나경원 의원이 최전방에 투입돼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성 등 정부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장동혁 “손현보 목사 구속은 종교탄압” 주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오전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부산 첫 방문 일정으로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손 목사는 개신교회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박지원 의원 대선 이후 12번째 광주·전남 경청 투어 ‘눈길’

2년간 매주 지역구 찾는 ‘금귀월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해남·완도·진도·사신) 국회의원이 대선 이후 지역 시민단체 등과 만나는 ‘경청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대선 기간 중 박 의원은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정권 교체에 호남이 앞장 서 달라”고 호소하는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대한 고마움을 ‘따뜻한 감사 인사’로 대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3일 목포지역 언론인과의 만남에서 ‘전남 서부 조선사업’, ‘해경 정비창’, ‘신재생에너지 사업 배후단지’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을 두고 열띤 토론을 했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소개했다.



행했다.

이를 통해 박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보여줬던 광주·전남의 민주당에 대한 사랑에 고마움을 표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 등을 소개했다. 또 지역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광주·전남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위 원장으로 활동한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간 광주를 10회, 목포를 2회 방문해 학계와 시민단체, 5·18 관계자, 언론계 등을 만나는 ‘경청투어’ 12회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경청투어를 통해 많은 도움과 좋은 충고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지역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매주 지역구를 찾는 ‘금귀월래’(金歸月來·금요일에 지역을 찾고 월요일에 서울로 돌아간다)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년여 동안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금귀월래를 하고 있으며 75차례 해남·완도·진도를 찾고 있다.

지난 14일에도 지역구를 찾아 명현관 해남군수와 해남군 관계자 등과 예산을 협의했고, 종교인과의 만남 등을 통해 지역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재인-이낙연 함께 웃는 사진 이해 안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상임고문은 최근 소셜 미디어(SNS)에 “추석 인사를 겸해 아내와 함께 평산으로 가 문 전 대통령 내외분을 찾아뵈었다”고 적었다.

이 상임고문은 이런 글과 함께 문 전 대통령 내

외와 함께 활짝 웃는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 상임고문은 2021년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와 경합해 패배했다. 이후 2024년 1월 민주당을 탈당해 새미래민주당을 창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괴물 독재국가의 출현을 막고 희망의 제7공화국으로 함께 건너가자”며 국민의 힘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 연설을 하는 모습도 보

였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SNS에 “(문) 전 대통령께서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 난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났다”며 “이러면 세상이 당연히 정치적 해석을 할 것임을 알 터인데 굳이 저렇게 환대하는 사진을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적었다.

이 최고위원은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이 전 총리의 행보”라며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로 헌법 질서를 위반하면서 파면돼 지른 지난 대선에서 내란에 동조한 김문수 후보를 지지 선언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쏘아붙였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정진욱 “주월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곧 착공”

1년 3개월 멈춰섰던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사가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재개한다.

중단 전 공정을 77%를 이어받아 마무리 공정과 품질·안전 점검을 병행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운영규 사장 직무대행, 주월동 지역주택조합 주용욱 조합장, 남양건설(주) 정인수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공이행 협약서와 시공보증이행 추가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로 재시공을 위한 보증·자금 실행의 틀이 마련됐다. 공사 재개와 함께 잔여 공정 계획을 재작성하고 품질·안전 점검을 거쳐 순차적 준공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HUG가 시공이행 보증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



는 것은 HUG 역사상 최초이자 지금까지 유일한 사례로 꼽힌다.

해당 사업은 협력업체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장기간 멈춰섰다. 정 의원은 3월부터 국토부·HUG·대출기관을 상대로 중재에 나서 공정 재배치와 금융 구조를 조율했고, 8월까지 쟁점이던 중도금 추가대출 보증 문제도 합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추가약정을 출발점으로 삼아 현장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겠다”며 “재가동이 시작되면 내년 9월 준공 계획을 자질 없이 이행해 조합원 283가구의 입주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tb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40
1985
202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